

종묘 정전에 나타나는 누미노제(Numinose)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uminose appearing in Jeongjeon of Jongmyo

Author 조은환 Cho, Eun-Whan / 정회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실내디자인전공 박사과정
이 찬 Lee, Chan / 정회원, 국민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Abstract Between various ideological experiences, such as spatial, artistic and religious experiences, a consistent and transcendental sense exists, which is difficult to systemize or establish, in all the senses human beings experience. It shows that the depth of essence may be much deeper than that of religion or science in limits of humans' thinking and experiences. On the premise that we need to rationally understand and systemize such a sublime experience, it is thought that we will be able to expand the system of our senses through a new approach breaking away from the previous concepts used to interpret a spatial experience. Rudolf Otto, a German philosopher and comparative religion scholar, explains such an essential sense through Numinose Theory. As his theoretical analysis and approach are used to explore the mechanism of such a transcendental emotion, which is impossible to express with such words as 'sanctity', 'sublimity' and 'reverence', from various perspectives, but intend to exclude dogmatic logic. Therefore, they seem to become new and useful tools in aesthetically understanding space design and objects of arts. Thus,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value Numinose Theory has in the aspect of understanding space design, based on which this study intends to use the Numinose concept as a concept of interpreting 'Jongmyo Jeongjeon'.

Keywords 루돌프오토, 누미노제, 종묘, 합리성, 비합리성, 선형성
Rudolf Otto, Numinose, Jongmyo, Rationality, Irrationality, Apriorit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간적 경험이나 예술적 경험, 또는 종교적 경험과 같이 다양한 관념적 경험 사이에서, 인간이 체험하는 감각에는 체계화 하거나 정립시키기 어려운 일관되면서도 초월적인 압도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험과 감각이 갖는 압도적이지만 주관적인 경험이 때로는 비이성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표현하기 어려운 본질'로서 경험되는 초월적인 압도성은 미학과 종교, 철학적 범주 속에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인간의 삶과 양식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이름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사고와 체험이 가지는 한계 속에서 본질의 깊이가 종교나 과학보다 훨씬 더 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그러한 숭고한 경험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체계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공간과 공간적 체험을 해석하는 그 동안의 개념을 벗어난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우리는 감각의 체계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비교종교학자인 루돌프 오토(Rudolf Otto)는 이러한 본질적 감각을 누미노제 (das Numinose)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의 이론적 분석과 접근은, '성스러움' '숭고' '외경' 이라는 단어로는 표현 불가능한 초월적 감정이 가지는 메커니즘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고 있으면서도 도그마적(Dogma)¹⁾ 논리를 배제하려 하고 있기에, 종교성을 배제한 공간디자인과 예술 대상에 대한 미학적 이해를 하는데 있어 새롭고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1) Dogma란 '교의'로서 해석되어 지는 독단적 신념을 의미한다. 철학적·정치적 신념이나 주장을 가리켜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그리스도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루돌프 오토는 그의 누미노제 개념에 있어 이러한 Dogma적 논리와 접근을 배제하고 본질적 감각을 체계화 하려 하였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lc@kookmin.ac.kr
** 이 논문은 2016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논문임.

이에 본 연구는 누미노제의 개념이 공간디자인을 이해하는 관점으로서는 어떠한 의미체계를 가질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공간디자인의 의미체계로서 분석한 누미노제 개념을 종교 정전을 해석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의 맥락에서 의의를 갖는다.

첫째는 누미노제가 가지는 표현하기 어려운 본질의 대상이 갖는 보편성이다. 그것은 외경심(畏敬心)을 불러일으키는 전율적(戰慄的)인 무서움, 압도적인 권위, 세력 있는 것, '절대타자(絶對他者)'로서의 신비로 요약되는 누미노제가 종교적 특성을 배제하고, 공간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이고 초월적 감각을 설명하는데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조선왕조가 사용하고 유교적 이념아래 건축 되어진 종교 정전의 특성은, 종교적 특성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 누미노제 개념이 내포한 보편성과 공간적 성향을 더욱 명료화 시킬 것이다.

두 번째 의의는, 종교가 갖는 누미노제적 속성을 통해 종교의 보편적 가치와 특성을 새로운 관점으로 재조명하는 것이다. 기존의 종교건축의 이해는 역사적 배경과 유교적 관점의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면서도, 일반화된 건축조형 이론에 의해 이해된 것이 일반적이다. 새로운 관점과 확장된 시선을 통해 다시 보는 종교의 특성을 통해 우리는 종교의 본질에 새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전제로, 루돌프 오토의 누미노제 개념을 공간디자인의 체계로서 이해하는 대상으로 종교의 정전을 연구의 분석 범위로 하였다. 종교를 지칭할 때에 포함되는 물리적 영역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창건시기에는 정전일곽만을 종교로서 지칭하였지만, 정전에서 조묘(祖廟)된 신위를 모시는 영녕전(永寧殿), 임금이 궁궐에서 종교로 가는 길인 종가(鍾街), 종교 제례를 앞두고 임금과 세자가 하루 전 머물던 어숙실(御肅室), 부속건물 등 확장된 범위로서도 이해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의 제례 공간인 정전을 물리적 연구 범위로 한정하였으나, 정전의 영역을 정전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적 행위와 체험까지 포함하여 볼 수 있기에, 제례가 이루어지는 동선과 제례양식도 연구의 범위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외대문에서 정전으로 향하는 동선과 월대, 종교에서 행하여지는 종교제례의 형식을 공간적 범위로서 연구에 포함하였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루돌프 오토의 누미노제 개념을 체계화하고 현재까지 비교종교학의 대표 이론으로 다루어지는 그의 저서

“성스러움. 신 관념에서 비합리성과 그것이 합리성과 갖는 관계(Das Heilige. Über das Irrationale in der Idee des Göttlichen und sein Vergltnis zum Rationalen)”²⁾를 근간으로 하여, 그의 개념을 연구한 인문학 분야의 문헌과 선행연구를 이해함으로써 추출된 공간적 체계와 요소를 바탕으로, 현장답사 되어 진 종교 정전 공간을 분석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루돌프 오토와 누미노제 개념

(1) 루돌프 오토의 생애와 사상적 배경

루돌프 오토는 1869년 독일 하노버(Hannover)의 파이네(Peine)에서 태어났으며, 엘랑겐(Erlangen) 대학교에서 신학 및 철학을 전공 한 후 독일 Göttingen 대학교에서의 철학사, 신학, 종교사 강의를 시작으로 1904년 같은 대학 조직신학 교수, 1914년 독일 Breslau 대학교 신학 교수, 1917년 독일 Marburg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서 강의한 후 같은 대학교의 총장직을 역임하였다.

루돌프 오토가 자신의 독창적 사고와 학문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시기는 그가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체험한 1910년부터 1912년 사이로 전해진다. 이 시기에 그는 당시의 서양 종교철학 분야에 서는 이해가 부족했던 동양의 여러 나라를 장기간 방문하게 되는데, 이 경험이 그의 학문적 깊이와 범위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본인의 여행기록과 강의를 통해 기록하고 있다. 인도, 중국, 일본, 팔레스타인, 이집트, 북아프리카, 미국을 거쳐 독일로 돌아 온 그는, 말년에 동양의 대표적 종교들을 깊이 있게 탐구 하였는데, 특히 1925년부터 1928년 사이 인도를 다시 방문하며 힌두교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였다.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종교와 철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는 종교적 체험이 이성적 체험과 달리 갖고 있는 특수하고 독특한 본질과, 종교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면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학문적 가치에 관심을 갖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으로 그는 힌두교의 연구를 위하여 중요한 번역을 시도하여 동양의 사상과 종교를 서양에 선구자적으로 전하였고, 인도의 대표적 사상이 Sankara (788-820)와 중세 그리스도교의 사상이 엑카르트(Eckhart)의 사상을 비교 하는 내용으로 ‘동서의 신비사상’(West-Östliche Mystik)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하였다.³⁾ 이러한 과정을

2) 루돌프 오토의 저서 ‘성스러움 - 신 관념에서 비합리성과 그것이 합리성과 갖는 관계(Das Heilige. Über das Irrationale in der Idee des Göttlichen und sein Vergltnis zum Rationalen)’는 초판의 이름이며, 국내에서는 ‘성스러움의 의미’로 출판되었다.

3) 이재경, Rudolf Otto의 종교철학 안에서 Numinose가 갖는 종교적 의미에 대한 연구, 광주가톨릭대 석사논문, 2011, p.19

통해 그는 인도의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체계와 대표적인 학자들의 사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인도인의 종교적 생활까지도 학문적으로 분석하였다.

루돌프 오토의 학문적 성과와 과정에 있어 특이한 점 중 하나는, 그가 누미노제 개념과 학문적 결과물을 평생에 걸쳐 수정하고 갱신한 점이다. 그는 누미노제 개념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종교가 갖는 기능과 삶의 본질에 대해 문화와 시대, 민족, 학문적 분야의 구분 없이 폭넓은 시선을 갖고 평생에 걸쳐 연구를 갱신해 왔다. 그의 저서는 개정판이 거듭될수록, 책을 재생산하지 않고 추가되는 각주를 독립된 책으로 엮어, 후에 '누미노제와 관련된 논문들'을 펴내기도 했으며, 본인 연구의 연장선에서 나온 '완전히 다른 것(Das ganz Andere)' '세상을 초월하는 감정 - 누멘적 감각'은 앞의 책 '성스러움'을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완성해 나가며 세계적 호응을 얻었다.

(2) 누미노제의 개념과 어원

철학용어로서 누미노제(Das Numinose)는 사람에게 피조물(被造物)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신비'로서 묘사된다. 이를 다시 분석하면 외경심(畏敬心)과 두려움, 매혹을 함께 불러일으키는 '절대타자(絕對他者)'로서의 전율적인 무서움, 압도적인 권위, 신비로 요약된다. 이는 곧 두렵고 절대적인 것 자체 앞에서 느끼는 인식주체의 함몰감으로서 설명되고 있다. 루돌프 오토는 그의 책 '성스러움'에서 누미노제는 가르쳐질 수 없이 오직 자극할 수 있고 각성시킬 수 있을 따름이라고 이야기한다.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대상이자 '성스러움'이라는 익숙하고 제한된 용어로 표현될 수 없는 대상을, 기존의 개념을 낮설게 만드는 '누미노제'라는 용어를 통해 오토는 대체하고 있기도 하다. 오토는 '성스럽다'는 말이 시간을 거치면서 윤리화되고 합리적으로만 이해되었고, 종교적 이해 안에서도, 본질과 원초적 감정이기 보다 종교적 체계에 국한시키는 표현에 얽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함의하는 본래적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윤리성과 합리성에서 자유로운 이름을 제안한 것이다. 루돌프 오토는 누멘적 감각(sensus numinis)이 인간이라면 선형적으로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을 전제한 후대 종교 현상학자들의 입장을 선구적으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학적으로는 누멘(Numen)이라는 라틴어 명사에서 '누멘적인 것'이라는 형용사 '누미노스'(Numinos)와 '누미너스'(Numin:os)라는 독일어 단어를 끌어낸 것이 오토의 순수한 창작이자 제안이라는 연구가 보여진다. 쾨도르프 등 과거의 학자들이 누멘을 유사한 의미로서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독립적 의미체계로 정립한 것은 루돌프 오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용어를 성스러움의 속성을 지칭하는 기술적 용어이자 정관사das를 붙여 명사화 시킨 누미노제(Das Numinos'e)

로 만든 것 또한 오토의 업적이다. 언어학자들은, 라틴어인 Numen의 기원은 현대 독일어에서 '새로운'을 뜻하는 노이(neu)에서 왔다고 설명한다. 인도 게르만어인 노이 neu의 원래적 의미는 '움직임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다. 이후의 종교학적 연구에 따르면 로마시대의 종교적 맥락에서 Numen은 신들의 특징이나 신 자체를 지칭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4)

2.2. 누미노제 이론의 특성

(1) 합리성과 비합리성

루돌프 오토는 누미노제의 기본적 특성이자, 누미노제가 동시에 지니는 속성으로서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꼽는다. 오토가 본인의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비교종교학적 신 관념에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념적 사유과정과 능력으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념이며, 익숙하고 정의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개념에 속한다. 반면, 이러한 개념적 명증성의 영역 밖에 우리의 개념적 사유로는 인식되지 않는 것을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부르며, 그것은 감정에 주어지는 신비에 가득 찬 어두운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성스러움의 원형적 특성을 '누멘적인 것'으로 표현하면서 그 본질을 논리나 합리를 초월하는 비합리적 무엇이냐, 가장 원시적인 시대의 사람들의 종교성에서도 보편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무엇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⁵⁾ 오토에게 합리성은 선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신의 속성이 합리적인 것이며 이러한 합리성은 인간 본성을 통한 유추가 가능하다는 생각에 기인한다. 종교적 특성을 통해 누미노제를 연구한 오토에게 합리성은, 비합리적인 것과 동시에 존재하는 특성이지만, 비합리적인 것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제한을 갖는다. 예를 들면 다양한 정통주의 종교들이 교리를 합리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함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합리성이 강조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원래의 원시종교가 갖는 종교의 특이성을 간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종교적 관점이기 이전에 원초적 감각의 간과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종교를 포함한 원초적 본질들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⁶⁾

(2) 누멘적인 것과 선형성

오토는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기인한 '누멘적인 것'은 신비(mysterium : 객관화된 성격)이자 경외감과 두려움(tremendum : 주관적인 인간의 마음상태)를 동반하며 그러한 감정에는 무아경(fascinatum : 경외감과 두려움을 통해 느끼는 현상)이 따른다고 주장한다.

4) 최정화, 루돌프 오토의 '성스러움'이 탄생되기 전후의 맥락, 종교와 문학 제22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2, p.41

5) Rudolf Otto, 성스러움의 의미, 분도출판사, 김희성 역, 2013, p.120

6) 이재경, Rudolf Otto의 종교철학 안에서 Numinose가 갖는 종교적 의미에 대한 연구, 광주가톨릭대 석사논문, 2011, p.30

오토는 그의 연구에서 모든 지각하는 존재는, 내면적인 경외감과 공포심을 많고 적든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어두움과 고요함 속에서 이 감정이 발현된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감정은 고요함을 벗어나 있을 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크고 강렬한 고독과 어두움이 다시 주어질 때까지 잠재되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인간이 지니는 이러한 경외감과 공포심은 문명에서 동떨어진 원시적 사회나 종교집단에서도 보여 지며, 이것을 누멘적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어떤 초월된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⁷⁾

누멘적인 것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지각이면서도 선형적으로 감각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누멘적인 것의 절대성은, 외부로부터 인식주체에 주어지는 수동적이거나 강제적 인식으로는 수용될 수 없는 것이며, 인식주체가 내재적 감각이 일깨워 질 만한 감각과 충돌하면서 일깨워 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의 연구 중 일부를 보면, 예술과 건축, 노래, 일련의 몸짓과 소리에서 갖게 되는 ‘마력적 양식’들의 대부분은 누멘적 이라고 하기에는 억제되고 희미해진 행태에 불과하지만, 종교가 아닌 위대한 예술을 통하여 누멘적인 것은 발현될 수 있고,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각 될 때에 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며 도교와 불교, 중국의 고대미술의 예를 들고 있기도 하다.

오토는 누멘적인 것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지각자체가 경험을 통하여 자극되고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선형적으로 인식자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주장한다.

3. 누미노제 개념의 요소와 공간적 특성

누미노제 이론의 특성은, 루돌프 오토에 의해 분류되어진 여섯 가지의 세부 요소로서 구분될 수 있다. 3장에서는 루돌프 오토가 분류한 누미노제의 요소들을 파악함과 동시에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누미노제 이론의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공간적 사례는 조형예술 분야와 동서양의 고전 건축으로 선정하여 누미노제의 기본적 개념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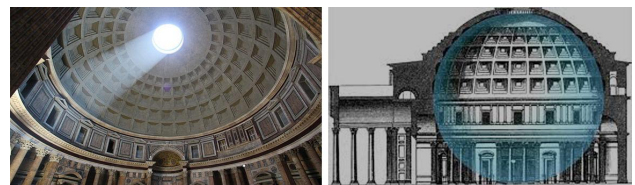
3.1. 누미노제 개념의 요소

(1) 피조물적 감정

루돌프 오토에게 피조물적 감정이란, 이전의 철학자 슐라이어마허가 이야기 한 의존성의 감정과 비교되어진다. 슐라이어마허는 인식주체의 무력감이나 부족감등 삶과 체험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자연적 의미의 의존감정을

넘어, 유추와 암시의 영역과는 구분되는 ‘경건한 의존성’을 통해 다른 의존적 감정들과의 차이를 강조하였다. 오토는 슐라이어마허의 의존성을 수용하면서도, 그 감정이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나, 완전한 것과 단계적인 것과 같은 구별을 넘어선 질적 구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피조물적 감정’이라는 용어를 누미노제 요소로서 정립한다. 그의 연구에서 피조물적 감정이란 인식자가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는 무엇과 대면함을 지각할 때, 자신의 ‘무(無)속으로 함몰되어 소멸되는 인식주체들이 느끼는 감정이라 이야기 한다.⁸⁾

오토에게 피조물적 감정은, 절대적인 위압대상 앞에서 단지 함몰되고 무성을 느끼는 요소만이 아니라, 합리적 관념으로서 분석하기 힘든 자기 성찰적 감정이다. 오토는 슐라이어마허의 의존적 감정은 종교적 감정 그 자체에 규정되어진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본인이 정립한 피조물적 감정이란 외부적 초월대상에 관한 것이기 보다 오히려 주관에 나타나는 잠재된 각성이자 결과라고 보았다.



a) 판테온의 빛 유입

b) 판테온의 돔 구조

<그림 1> 판테온, 로마, 118-128년경, <https://en.wikipedia.org>

오토가 언급한 피조물적 감정을 공간적으로 파악함에 있어 고대 로마의 판테온은 그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 사례이다. 판테온은 일반적 신전이나 종교적 고대건축과 달리, 공간 인식자가 특정 신을 향하지 않고 돔으로 된 로툰다와 만신에게 둘러싸여져 돔에서 내려오는 빛의 한가운데 놓이게 하고 있다.⁹⁾ 이는 인식자가 만신에게 둘러싸여 피조물적 감정을 느끼게 하면서도, 인간 스스로가 초월적 대상을 바라보는 형식이 아닌 신의 자리에 놓여지게 하며, 종교를 초월한 자기 성찰적 감정과 함께 신과의 동화과정에 직면하게 한다. 이는 오토가 말한 인식자 주관에 나타나는 잠재된 각성이 공간적 조율을 통해 가능함을 보여준다.

(2) 두려움의 신비 *Mysterium tremendum*

피조물적 감정은 인식의 어두운 영역에서 체험하는 이차적 감정과 함께 자기 감정 속에 따라오는 이차적 감정을 수반하는데, 오토는 이러한 이차적 감정의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면을 두려움의 신비라고 보았다. 신비는 개념적으로는 파악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것,

7) 최정화, 루돌프 오토의 ‘성스러움’이 탄생되기 전후의 맥락, 종교와 문학 제22호,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12, p.45

8) Rudolf Otto, 성스러움의 의미, 분도출판사, 길희성 역, 2013, p.43
9) 구은성, 고대 로마 건축의 기하학적 구성 질서 및 비례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p.48

가려진 것, 공개되지 않은 것, 일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지칭일 뿐 정확하게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의 신비는 인간을 평온 속에서 고요한 상태로 만들고, 겸손한 침묵과 전율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오토의 설명이다. 또한 두려움은 공포와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감정임을 오토는 강조하고 있다. 전율과 공포 앞에 인식주체는 대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대상에 다가가 동화되고, 두려움이 동반하는 신비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종교적으로는 이러한 감정이 ‘공포’와 다른, 인간에게 내재된 새롭고도 생소한 ‘미묘한 것’(uncanny)에 대한 감정으로서, 모든 종교사적 과정에서도 원초적이며 고유한 기본 요소로서 활용되었다.



a) 암벽산을 통한 공간확장 b) 장제전 열주랑

<그림 2> 핫셉수트 장제전, 이집트, BC 1503~BC 1482년경
<http://www.doopedia.co.kr>

고대 이집트 제 18왕조의 다섯 번째 파라오였던 핫셉수트 여왕은 신과 인간의 중간자이며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 다스리는 왕으로서 스스로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건축으로서 장제전을 만들려 하였는데, 이 장제전은 여왕이 장악한 왕권과 신권 앞에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경으로서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했다. 이를 위해 열주랑을 가진 세 개의 테라스로 이루어진 이 공간은 태양을 반사시키는 거대한 암벽산을 뒤로 하여 주변의 자연을 건축의 일부로서 끌어들인다.¹⁰⁾ 이 극적 대비와 조화는 신성한 산과 자연을 모두 여왕의 무덤으로 만듦으로써 그 앞에 놓이는 인식주체는 작고 보잘 것 없는 대상이 되어 겸손한 침묵과 전율을 느끼게 한다. 인식주체는 태양 빛 아래 숨을 곳 없이 광대한 평면과 중앙계단을 중심으로 좌우 22개의 대칭된 기둥들이 만드는 절대적 위엄 앞에 놓이게 되는데,¹¹⁾ 나일강과 일직선상에 놓여진 거대하고 긴 경사로는 사원을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면서도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서 오토가 언급한 인간에게 내재된 두려움을 통한 ‘미묘한 것’의 감정을 유발시키고 있다.

(3) 위압성과 활력성

절대적 불가접근성으로서 누멘적 감정 속에 존재하는 위력과 절대적 압도성을 오토는 ‘위압성’(majestas)이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인식하는 객관적 압도성과 함께 인식주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자 누멘적 원료(原料)인 것이다.

오토의 이론에서 이러한 위압성과 활력은 생동성, 운동, 충동, 감정적 기질과 같은 단어들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이 활력성의 요소는 사회문화적으로는 영웅적 위압, 문화적 긴장으로 보여 지기도 하며, 종교적으로는 그 긴장이 극단적 성전(聖戰)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한다.¹²⁾



a) 기울기를 통한 위압감 b) 연속적 흐름과 활력성

<그림 3> Richard Serra, The Matter of Time, 1994
<https://svbsubscription.com>

오토가 설명한 위압과 활력은, 공간적으로는 미국의 조각가 리처드 세라의 조각을 통해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철을 재료로 1970년대부터 보여 온 그의 대표적 연작들을 통해 리처드 세라는 작품이 관객과 공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감정을 대담하게 실험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았는데, 휘어지고 기울어진 거대한 철 구조물은 사이를 통과하는 관객에게 일차적으로 위압감을 주며 균형과 붕괴의 위험을 감상자가 지각하도록 하였다.¹³⁾ 물성이 갖는 무게감과 압도적인 스케일은 그 자체가 유입시키는 분리된 동선 속에서 인식주체가 구조물을 실제 부피보다 더 큰 부피와 공간으로서 느끼게 함과 동시에 이차적으로는 강하고 무겁고 거친 철의 속성이 유연하고 가벼운 흐름과 생동성으로서 잠재되도록 하여 철에 대한 관념을 해체시키며 설치된 장소에 활력을 부여한다.¹⁴⁾ 공간의 생동성은 인식주체의 스케일을 넘어서기에 좁은 동선을 통과하는 관객에게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게 하지만, 인식주체의 공간적 참여를 통해 잠재적이던 생동성은 유연한 흐름과 활력으로서 장소에 부여된다.

오토는 이러한 활력성의 요소가 불가언적인 것에 대한 지시어 정도로 쓰이는 속성인데 반해, 실제적 적용을 위해 절대화 시키는 과정에 의해 의미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오토는 누멘적 활력성을 설명

10) 정지윤, 이집트 신전건축의 기하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0, p.47

11) 김계천, 미의신화, 쥘리그래퍼, 2012, p.41

12) 김유겸, 종교기원에 관한 인본주의적 고찰 - 에리히 프롬의 사상을 중심으로, 부산가톨릭대 석사논문, 2007, p.34

13) 차미경, Claes Oldenburg와 Richard Serra의 Soft 조각과 Hard 조각의 비교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5, p.26

14) Richard Serra, <http://www.doopedia.co.kr>

하기 위해 괴테가 문학적으로 표현한 ‘마력적인 것’이 갖는 독특한 방식과 체험을 들어 ‘누멘적 활력’에 대한 가장 적합한 비유라고 주장 하였다.

(4) 전혀 다른 것

오토에 의하면 누멘적인 것의 신비개념은 감정 체험상의 두려움의 요소와 구분되어지는 것이거나 능가할 수 있는 것이며, 두려움을 제외하고 남게 되는 신비의 속성은 곧 기이한 것(mirum) 경이로운 것(mirabile)이라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매혹과 전율, 경외 이전의 오로지 ‘이상히 여기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순수하게 누멘적 감정에 직면함을 일컫는다. 오토는 이에 대한 비유로서 라틴어의 ‘obstupefacere’(정신을 잃게 하다), 희랍어의 ‘thamb’(놀라움), ‘thambeisthai’(놀라다)를 언급하였으며, ‘thamb’라는 소리는 다른 감정이 배제된 놀라움의 심정적 상태에서 ‘전혀 다른 것’을 이해하는데 참고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생소한 감정이자 소외감을 주는 것으로서, 친숙한 것이나 일상적인 것처럼 ‘편안한 것’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⁵⁾

존재 혹은 존재자 자체와 대립되는 비물(非物, Unding)이기도 한 ‘전혀 다른 것’의 인식은 오토에 의하면 특별한 세 단계를 통해 발전된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이질적인 것의 단계, 역설적인 것의 단계, 이율배반적인 것의 단계로서 요약된다. 인식주체는 대상을 개념적 파악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고 나서 역행하여 이성에 거슬러 일반대상을 해체시키고, 스스로 모순을 만드는 비합리화를 통해 이성을 변민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혼란과 오류로서 인식될 수도 있으나 동양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라면, 분명한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전혀 다른 것’의 누멘적 지시어로서 동양의 사례는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도교의 ‘무’(無)와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설명하는 ‘공’(空)은 그 자체로서 ‘기이한 것’(mirum)임과 동시에 역설과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설명 될 수 있다.¹⁶⁾

일본 세토나िका이에 있는 이쓰쿠시마섬은 일본의 고대 종교인 신도(神道)의 성지로 전해진다. 고대 일본인들은 이쓰쿠시마섬을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 마센산이 있기도 하여 섬 자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는데,¹⁷⁾ 오랜 역사의 시간동안 섬의 해안가에 신사가 건설되는 형식을 통해 고대 일본인들이 섬과 신사를 ‘전혀 다른 것’의 대상으로 어떻게 접근하였는지를 현재에 까지 보여주고 있다.

섬의 전면에 다다르면, 물 위에 부유하여 기준에 불



<그림 4> 이쓰쿠시마신사, 일본, 593년경
<https://www.flickr.com/photos/bentorode/4387016774>

수 없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오오토리이(大鳥居)를 마주하게 되는데, 진녹색의 산을 배경으로 서 있는 붉은 건축의 섬세하고 날카로운 형상은 산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그 대비가 물 위에 신기루처럼 비춰지게 하여 대상을 기이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섬에 사람을 들이는 문의 모습이면서도 신비롭게 물 위에 부유하고 있는 오오토리이와 함께 신사의 강당과 회랑들은 썰물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황량한 대지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역설적 모습은 다가가면 거대한 크기와 색상적 대비가 더해져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기존의 관념을 해체시킴으로서 누미노제의 ‘전혀 다른 것’이 보이는 이질적이며 역설적인, 이율배반적 단계로의 감정적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5) 무아경 Fascinos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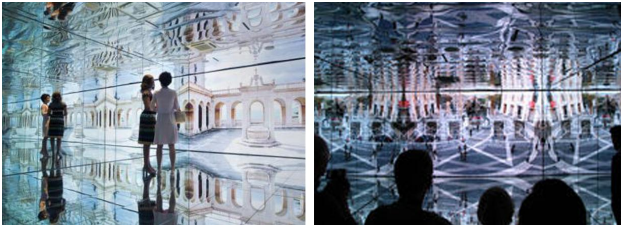
누멘적인 것이 압도적인 두려움으로서 체험되는 과정에서 공존하는 감정을 오토는 무아경(Fascinosum)으로 인식하고 이는 두려움과 대조적 조화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이 대조적 조화는 종교사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현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매혹성’(Fascinaton), ‘어마어마함’(monstrous), 그리고 ‘장엄성’(august)의 요소로 설명되는 무아경은 합리적 표상이나 개념들로 표현될 때 사랑, 자비, 동정, 도움 등으로 이야기 되지만, 이것들로서 종교적 지복 모두를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생각이다.

종교적인 인간들에게 있어 신비는 그 자체를 정복하고 스스로 그 정복의 과정을 통해 동화되려는 시도를 보이는데, 이는 주술적 행위나 자기 충만의 방법을 통한 황홀함으로의 시도일 수 있다고 오토는 생각한다. 무아경이 극치에 다다른 긴장상태가 되면 이것은 충일적인 것(充溢, das Uberschwengliche) 이 되어 초세상성의 선상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⁸⁾

누멘의 황홀과 매혹 안에는 ‘어마어마한’ (das Ungeheure)요소가 포함되는데 이는 합리화된 거대함으로서 편안 하지 않은 것, 두려워 떨게 하는 것을 지칭하며 우주와 같이 너무 거대하여 우리의 공간적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⁹⁾

15) Rudolf Otto, 성스러움의 의미, 분도출판사, 김희성 역, 2013, p.67
 16) 이계경, Rudolf Otto의 종교철학 안에서 Numinose가 갖는 종교적 의미에 대한 연구, 광주가톨릭대 석사논문, 2011, p.41
 1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

18) Rudolf Otto, 성스러움의 의미, 분도출판사, 김희성 역, 2013, p.87
 19) 오토는 어마어마한 것’이 희랍어의 ‘테이노스(deinos)란 형용사가 지닌 다면성과 난해함을 번역하기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라고 이야기 하며 언어가 가지는 원초적 의미를 강조한다. 그는 그의 책에



a) 공간의 반복과 확장 b) 반사를 통한 형상의 왜곡

<그림 5> 밀라노엑스포 이탈리아 파빌리온, 2015
<https://commons.wikimedia.org>

Marco Balich의 구상으로 연출되어진 밀라노엑스포의 이탈리아 파빌리온에서, ‘The Strength of beauty’ 전시관은 공간적 감각을 이해범위를 넘어서는 무한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인식주체의 감각을 무아경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사례일 수 있다. 21가지의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아름다움을, 반사되는 벽과 천장 및 바닥의 물성을 통하여 관람자에게 제공한 이 공간은, 이탈리아의 아름다움을 단순히 전달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과 움직임을 통해 공간 안에서 환영처럼 보이게 하였고, 이를 위해 사용된 반사되는 공간의 물성은, 형상과 움직임을 끊임없이 반사시키며 인식주체가 가늠할 수 없는 무한의 공간 속에 놓이게 하여 움직이는 환영들 속에서 무아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실제적 형상들은 무한히 반사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형상을 왜곡시키며, 나타나고 사라짐을 반복함으로써 관객에게 무엇이 실재하는 것이고 아닌 것이지가 무의미해지게 한다.

이러한 방식은 우주와 같이 우리의 공간적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오토가 언급한 장엄성 속에서 반복되는 확장이 만들어 내는 무아경에 대한 사례일 수 있다.

(6) 유추적 감정

오토는 누미노제의 요소들이 갖는 의미를 정의함에 있어, 누멘적인 것의 미학적 언어들과의 차이를 이야기 한다. 예를 들어 ‘숭고한 것’(das Erhabene)의 경우 그 자체가 갖는 초세상성과 친숙함으로 누멘적인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하지만, 엄밀하게는 그 의미가 미학적 범주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오토에게 종교적 감정은 미학적 감정과 구분되는 원초적인 상위개념이며, 미적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유추적 감정과 관념들은 서로 대치되거나 비교 되는 데에 머물지 않고, ‘자극’과 ‘이행’의 과정을 통해 연계된다. 오토는 심리학의 기본원리로서 각각의 표상들이 서로 다른 표상을 자극하여 끌어당기고 연계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의 감정과 의미로부터 다른 감정으로 이행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하며 감정의 의미 연계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 어마어마한 것은 더 이상 숭고하지 않고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한다고 말한 피테의 표현을 인용한다.

이러한 연계의 다른 예로서는 음악화된 노래와 소리가 보이는 복합감정도 거론한다. 음악과 소리는 감정표현을 위해 일상적인 언어와 함께 사용하는 제2의 언어가 아니며, 음악의 비합리적 요소를 도식화 한다는 것은 단편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음악과 소리 또한 유추된 감정이라고 이야기 한다.



a) 소쇄원 전경 b) 물의 조절과 청각적 공간감

<그림 6> 소쇄원, 담양, 1536년경, <http://www.doopedia.co.kr>

오토가 언급한 음악과 소리와 같은 비물질적 요소로서 공간 인식자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극’과 ‘이행’을 통해 감정을 연계시키는 공간적 이해는, 한국의 전통건축인 소쇄원을 통해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소쇄원의 공간에서 소리는 자연대상인 물을 공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공간별로 물소리의 강약을 달리하며 공간적 표현을 완성하였는데, 대봉대 앞과 조담 위, 오곡문, 광풍각 지점에서 약하던 물소리가 커지게 하여 동선을 이끌고, 애양단은 담이라는 반향벽 작용으로 오곡문의 물소리와 조담에서 들리는 폭포 소리가 조화롭게 들리게 하는 청각적 수단을 활용하였다. 대봉대의 영역을 동서로 나누었을 때 동측은 길과 마주하여 강한 빛과 물소리는 최소화 하지만, 서측은 그늘과 강한 폭포소리를 들리게 하여 공간의 전환을 의도한다. 광풍각에서의 물소리는 수직적 높이차로 밑의 흐르는 물은 보이지 않고 물소리만 전달됨으로서 광풍각 내부에 있는 대상에게 물위에 떠있는 감정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²⁰⁾ 폭포, 나무흠통, 굽은 물길을 통해 소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 소쇄원은 공간의 물질적 요소와 함께 인식자의 유추적 감정을 조절하여 공간의 감정을 완성하고 있다.

3.2. 소결

누미노제의 개념을 체계화 하는 과정에서 루돌프 오토는 동서양의 철학과 학문, 종교를 포괄하는 연구들을 비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학문이 초월적 본질과 감각에 대해 갖고 있던 이론적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토는 누미노제의 개념을 구성하는 특성과 하부 요소들을 그의 연구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20) 김명주, 소쇄원 공간의 재해석을 이용한 도심지 공원 계획안, 건국대 석사논문, 2004, p.36

<표 1> 루돌프 오토의 분류에 의한 누미노제의 구조

Numinose의 특성		Numinose의 요소	
합리성	이성, 목적적 의지, 통일성, 의식성	피조물적 감정	의존성, 합물감, 절대성, 무화
비합리성	탈개념성, 원시성, 어두운영역, 신비	두려움의 신비	거대함, 겸손, 침묵, 전율, 환희
누멘적인 것	경외감, 두려움, 공포, 고요함, 매혹	위압성과 활력성	생동성, 정열, 흥분, 충동
선형성	인식주체, 잠재성, 능동성, 절대성	전혀 다른 것	기이함, 경이로움, 초자연, 순수침묵
		무아경	매혹성, 어마어마함, 장엄성
		유추적 감정	자극, 이행, 오성, 복합감정

4. 종묘 정전의 누멘적 특성

누미노제 이론의 특성과 세부 요소로서 종묘정전을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종묘 정전의 객관적 개요와 함께 종묘정전을 공간적 시퀀스로서 접근함과 동시에 누미노제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묘의 제례 공간인 정전을 연구 범위로 한정하였으나, 정전의 무형적 요소인 공간적 행위를 물리적 공간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범위로서 보고, 외대문에서 정전으로 향하는 동선과 월대, 종묘에서 행하여지는 종묘 제례의 형식을 연구범위로서 포함하였다.

4.1. 종묘 정전의 개요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왕조에서, 유교는 '예(禮)'를 근본적 규범으로 삼았으며 사람이 사는 기본법칙이자 국가질서의 근간으로 생각하였다. 그 중 가장 주요한 예가 '길례(吉禮)'로서의 제사이다. 대사, 중사, 소사로 나뉘는 길례에서 대사는 곧 종묘사직이며, 종묘는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제례로서 여겨진 것이다.²¹⁾

유교의 제사는 이렇듯 신을 위한 형식이 아닌 신이 된 인간인 '성인'이라는 지적인 경지에 이른 자를 모시며, 인간이 지향해야 할 하늘을 설정하고 지향했다. 여기서 하늘은 자연적 대상을 넘어서는 유교적 관점에서의 완전체이자 종교성을 넘어서는 현세의 지향점인 것이다.

종묘의 제례 역시 신을 모시기보다 현세의 교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기도하다. 사후에 종묘에서 신화와 후손들의 모심을 받으려면, 왕이라 할지라도 조상신이 되기 위해 현세에 본인의 삶을 하늘과 같은 모습으로 가꿔야 했다. 이는 손자세대의 왕이 선대왕의 종묘안치를 결정함에 있어, 공과를 따져 신하들과 결정하였기에 가능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²²⁾ 그렇게 추가 되어 진 신위

는, 곧 건축의 형식이 되어 실이 추가되며 공간이 확장되는 독특한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종묘의 공간구조에 있어 가장 특징적 요소로 꼽히는 이러한 증건(增建) 방식은, 좌묘우사에 따라 지어진 정전의 포화상태에서 별도로 확장하며, 확장의 방식도 유교적 위계에 따른다. 북서쪽을 위계가 높은 곳으로 하여 동쪽과 남쪽으로 갈수록 낮은 위계를 갖게 하는 서상(西上)의 유교적 원리에 따라 지어지는 구조이다. 위계상은 영녕전이 상위에 있으나 춘추제향만을 올리는 영녕전의 기능과 달리 수시로 제사를 드리는 정전이 배치의 중심에 놓이며 중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종묘에서 이루어지는 종묘제례는, 단순한 격식에 의한 제례이기 이전에 유교이념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왕권의 지배이념을 과시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종묘제례는 각각의 사계절에 치르는 사시대향(四時大享)과 동지 이후에 올리는 제례가 가장 큰 규모로서 치러지는 왕의 친제(親祭)로서의 제례이고, 그 이외의 제례는 따로 날을 택하고 제관(祭官)을 정하며 치루어 진다.²³⁾

4.2. 종묘 정전의 누미노제 특성 분석

오토는 그의 연구에서 '예술에 있어서의 누멘적인 것의 표현 수단'을 설명하며, 예술과 건축 등을 통해 의도되어지는 다양한 표현과 계획들은 때로는 거칠은 형태의 누멘적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거친 형태의 누멘적 표현은 마력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는 곧 누멘적인 것이 억제되고 회피해진 형태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토에게 누멘적인 것은, 그것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통해 누멘적인 요소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완전해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성스러움을 예술과 건축으로 표현시키는 과정에서, 의도된 계획과 표현방식을 인식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조형적 형식이 더해지는 여러 문화권의 사례들과 달리 종묘는 종묘제례의 동선이 시작되는 외대문과 정전으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표현과 감정이 절제됨과 동시에 규격화 되어진 조형형식 없이 자유로운 모습으로 시작된다. 거대하거나 장식적이지 않은 외대문을 지나 정전으로 향하는 길에서 보여 지는 판석들은 잘 다듬어 지지 않은 거친 마감과, 형식화 시키지 않은 불규칙한 모습으로 자유로움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교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왕조에서 갖는 종묘제례의 중요성과 유교적 위계를 강조했던 사상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에 다른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조형적 형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비추어 질 수 있지만, 들의 불규칙한 형태감과

21) 홍순목, 종묘건축의 공간 체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8, p.8

22) 김계천, 미의신화, 쉐리그래피, 2012, p.328

23) 유병훈, 종묘 길의 건축 특성 고찰, 동국대학교 산업기술연구원, 1999, p.2

거친 질감은 자연스럽게 제례를 행하는 이들의 걸음걸이를 느리게 하면서 공간적 행위를 조절하며²⁴⁾, 이러한 길의 형식은 큰 시선으로는 거대한 직선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권위를 강조하는 듯하면서도, 시선의 목적이 되는 대상을 시야에서 숨긴채 강요 없이 이동 방향을 유도하고 있다.

종묘의 진입 동선에서 보이는 조형적 특징은, 유교적 중요성과 기능에 비해 아무것도 담지 않은 여백과 같이 비워진 형식으로서, 동선의 유도과 행진의 속도를 조절하는 세밀한 표현의도들이 존재함에도 그 형식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표현양식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서 인식자의 선택적 체험으로 모든 것을 채워 나갈 수 있는 여백만 담긴 공간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오토가 누멘적인 것이 그것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통해 누멘적 요소를 표현할 수 있지만 완전해지지 않는다고 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종묘의 진입 동선은 의도되었던 예술과 건축이 보이는 거칠은 형태의 누멘적인 것을 넘어서서, 완전함을 추구한 조선왕조의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7> 종묘 외대문 출입동선의 선택적 요소

(1) 피조물적 감정의 공간

정전으로 향하는 배례객의 동선에는 규격화 되지 않은 거친 판석들이 동선을 이끄는 것과 함께, 주변에 놓여진 부속 건축물들이 배례객과 완전히 거리를 두거나 다가움 없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붕의 그림자를 알케 드리운 상태로 배례객 곁에서 배례객의 동선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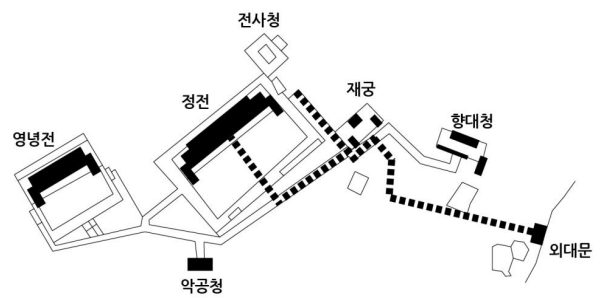
이 길은 단순한 통로의 기능이 아닌, 신과 왕을 인도하며 무한한 상징성을 통해 신의 공간임을 인식주체에게 인지시키는 제례공간의 일부 인 것이다.²⁵⁾ 배례객은 일정한 거리에 놓여진 부속 건축물과, 판석 주변에 물러나 있는 수목들에 둘러싸여 한 가운데를 행진하게 되는데, 양측의 일정한 거리감은 배례객이 신성한 공간에 들어섰음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스스로가 그 중심에 놓여져 조상신에게 향해가는 체험을 하게한다.

종묘의 전체 계획에 있어서, 외대문에서 시작하여 정전과 영녕전 등 부속건축물을 연결시키는 종묘의 도입부

는,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제관과 향. 축. 폐의 동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종묘제례의 절차를 지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는데,²⁶⁾ 누미노제적 관점에서 이러한 준비과정은 절제된 공간적 표현으로 배례객을 스스로의 선택적 감각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면서도, 스스로가 조상신의 공간 한 가운데 진입하며 신들의 공간과 동화되며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준비공간으로 이해된다.

오토가 구분한 피조물적 감정이란 인식자가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는 무엇과 대면함을 지각할 때, 자신의 ‘무’(無)속으로 함몰되어 소멸되는 인식주체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이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단순한 의존감정이 아닌 초월적 존재와의 동화과정이자 자기 성찰의 과정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유학자들이 생각한 최고의 형식이 하늘과 우주의 모습처럼 무한하면서도 현세가 투영되는 형식이었던 점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형태나 기교를 벗어나, 우주적 원리를 따르는 동시적이고도 무한한 형식을 갖추고자 한 점에서, 유학자들에게 초월적 원리의 지향은 곧, 스스로가 신의 경지에 이르는 길인 것이다.

오토는 피조물적 감정을 이야기 하며, 종교적인 인간의 본성은 초월적이거나 신비스러운 대상 자체를 정복하고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 충만해 지려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본성은 곧 스스로를 그러한 대상과 동화시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정전으로 향하는 길은, 강요된 표현과 장치를 드러내지 않고, 주변에 물러선 건물과 판석의 유도를 통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종묘정전에 이르기까지 배례객의 자기 성찰과 잠재된 각성을 유도하고, 스스로를 조상신과 동화시키는 준비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8> 종묘제례의 신로와 어로 행진 동선

(2) 두려움과 무화의 공간

정문에서 정전 사이에 놓인 재궁에 근접하면, 수목(樹木)사이의 대지는 시작이 넓고 끝이 좁아지는 형상임을 알 수 있는데, 멀고 가까움이 왜곡되어 물리적으로 길지 않은 동선이 길고 멀게 느끼도록 한다. 종묘제례 행차에서 왕의 동선으로 길에 접어들면, 정전이나 재궁과 같은

24) 진경성, 종묘의 건축적 상징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8권 제2호, 1998, p.587

25) 최진, 종묘 내 길의 유형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19권 제2호, 1999, p.1

26) 유병훈, 종묘 길의 건축 특성 고찰, 동국대학교 산업기술연구원, 1999, p.2

목표대상은 숨겨진 채로 어둡게 좁아지던 길은 방향이 꺾어지며 채공의 밝은 벽이 들어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식주체는 다음 공간에서 공간적 전환이 이루어짐을 인지하게 된다.

정전의 공간으로 들어서면, 외대문에서 이어진 길에서 보여 지던 감정과 달리, 광대한 열린 공간이 펼쳐지고 거대한 크기로 압도하는 직선의 검은 지붕이 그림자를 드리우며 월대 위에 뻗어있는 모습에 직면하게 된다. 정전의 지붕은 배후의 수목과 하늘을 떠받치며 원래의 거대한 크기를 더욱 부각시키고, 정면으로 바라보면 기와와 신살들이 일반적 소실점에 의한 공간적 인지가 되지 않고 거대한 시지각적 충격으로 감각되는데,²⁷⁾ 그 앞에서게 되는 인식주체는 자연히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가 되어 겸손한 침묵과 전율에 놓이게 된다.

하월대의 공간에서 정전을 올라다보면 건물의 기초가 시야에 가려져 건물 자체가 부유하는 듯한 모습이 되고 지붕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는 처마 하부의 벽과 기둥을 어둡속에 감추어 정전을 범접할 수 없는 공간으로 느끼게 하고²⁸⁾ 기하학과 축의 대칭에 의해 조성되는 절대적 위엄은 두려움을 동반한 경외심을 만든다.

자기성찰의 과정과 같던 진입로와 달리 종묘 정전에 진입하여 보게 되는 시지각적 충격과 위압은 절대적 불가접근성과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가려진 것으로 요약되는 오토의 두려움처럼, 거대한 공간감과 육중한 건물의 부유가 만들어내는 신비 앞에 경외심을 갖게 하고 인간에게 내재된 '미묘한 것'(uncanny)한 것에 대한 인식을 유발한다. 두려움은 힘, 위력, 위압, 절대적 압도를 통해 전해지는 상징적 가상임과 동시에 오토가 언급한 무화의 감정처럼 개인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끼게 하는 공간적 형식이다.

(3) 잠재된 위압성과 활력성의 공간

정전의 앞 공간은 거대한 면적이면서도 아무 것도 없는 비어진 공간이다. 109m 넓이와 69m의 깊이의 월대만이 존재하는 이 비어진 공간은 지면에서 90cm 올려진 하월대와 그 위로 약160cm 높여진 상월대로 구분되는데, 월대를 가로지르는 신로(神路)는 육신이 없이 정신만 존재하는 신령의 길이기엔 전돌 두 개의 폭으로 최소화 하여, 불규칙한 판석이 만들어 내는 전체 월대의 시각적 압도감과 생동감을 강조시키고 있다.²⁹⁾

그러나 월대의 거대함과 높이는 다른 문명에서 보이는 신전이나 종교건축이 보이는 압도적인 높이나 비례와 달리 배례객을 억누르지만은 않는다. 사뿐히 오를 수 있는



a) 월대의 위압성 b) 판석의 활력성

<그림 9> 정전에서의 경외심과 월대의 생동감

공간처럼, 배례객의 동선을 이끌고 있는 모습과 함께, 좁은 신로만이 거대한 월대의 공간을 가로지르며 정전의 그림자 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전의 공간은 절제되어진 건축의 형상이지만, 정전으로 향하는 월대는 도리어 고요하지만 강렬하게 움직이는 운해와 비교되어 지기도 하며,³⁰⁾ 판석들이 각각 다른 형태와 크기로 배치됨으로서 느끼게 되는 동세로 인해 더욱 활력적으로 요동치는 모습이다. 움직임을 고요함 속에 담은 거대한 월대의 공간은 물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져야할 평탄한 공간이지만, 움직이는 듯한 불규칙한 판석이 연출하는 운해 아래의 무한한 공간감을 느끼게 하여 편안하지 않은 긴장감과 활력성을 잠재하게 하는데 이러한 생동감은 그 존재로서만이 아닌 월대 위를 걷게 되는 배례객이나 제례의 행위에 의해 더욱 분명해진다.

종묘의 활력과 위압은 서양의 사례들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보다 고요하게 들어남으로서 도리어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없게 한다. 누적인 것에 있어 위압과 활력은, 실제적 크기와 힘으로서 가늠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 것처럼, 인지의 범위를 초월한 공간감 위에 고요함을 동반한 판석의 활력성은 정지된 공간에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4) 순수침묵을 통한 '전혀 다른 것'의 공간

월대를 지나 정전에 근접하면, 멀리서 바라볼 때에 지붕의 거대함을 강조시켰던 처마 밑의 그림자가 공간적 깊이로 인식되는데, 월대나 태실처럼 물리적으로 영역화된 공간과는 달리 퇴칸을 포함한 이 어둠의 영역은 존재와 대립되는 비물(非物, Unding)의 공간으로서 신기루와 같이 나타나고, 인식주체는 두려움을 망각한 채로 생소한 전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이질적 공간은 서로 다른 두 세계의 접점에 대한 은유가 되어, 신성과 세속, 현실과 가상,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를 전이시키는 역할을 하며 기존의 관념들을 해체시켜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도록 한다.³¹⁾

처마 밑에 숨겨져 있던 전면 열주가 분명해지고, 열주와 후면의 태실 벽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강한 음영을 통해, 벽이면서도 통로이기도 한 기이한 경계를 체

27) 이진영, 종묘공간의 기호 현상학적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12, p.46

28) 홍순목, 종묘 건축의 공간 체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p.87

29) 전찬진, 종묘의 건축 공간 깊이 표현 기법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6권 제1호, 2006, p.130

30) 김계천, 미의신화, 컬리그래피, 2012, p.332

31) 이진영, 종묘공간의 기호 현상학적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12, p.43

험하게 되는 것이다. 박석과 공포 모두 문양이나 단청 없이 주철로서 극도로 절제된 색채를 담고 있고,³²⁾ 모든 건축적 세부형식에는 화려한 장식과 기교가 없기에 이러한 전이공간의 선형적 배치는 이질적 체험의 효과와 함께 이성을 거슬러 ‘공’(空)과 같은 기이하면서도 역설적인 특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a) 처마 하부의 음영 b) 열주에 의한 경계

<그림 10> 정전의 음영에 의한 이질적 전환, /http://news.joins.com

오토가 이야기한 ‘전혀 다른 것’이 갖는 순수침묵의 형식에 있어 오토는 이러한 형식을 ‘무’(無, Nichte)와 연계시키는데, 여기서 ‘무’(無)라는 것은 단지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 없거나 비워진다는 뜻 뿐 만 아니라 존재하거나 혹은 생각될 수 있는 모든 것과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현실도 가상도 아닌, 산 자의 세계도 죽은 자의 세계도 아닌 이질적 경이로움의 공간 속에서 발현되는 신비를 언급함에 있어, 오토는 신비라는 말의 뜻을 우리에게 조금 낮설게 재정의 하고 있다. 어원적으로는 ‘신비’(mysterium), ‘신비적’(mystes), ‘신비주의’(Mystik)라는 말은 ‘mus’로부터 유래 한다고 보면서, ‘mus’라는 단어가 가진 ‘감추다.’, ‘숨긴다.’, ‘비밀로 하다.’ 등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신비의 일반적인 의미는 친숙하지 못한 것, 혹은 이해되지 않거나 설명되지 않은 것이라는 뜻으로 일컫는 것과 함께, 오토는 ‘전혀 다른 것’의 신비를 통해 ‘편안한 것’의 영역을 벗어나 기존의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5) 무아경의 공간

열주를 지나 좌우로 무한히 확장되고 있는 열주는, 반복과 선형배치를 통해 연속성과 방향성을 만들며 초월적 영속성을 표현하여 무한한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 끝없이 반복되는 기둥이 만들어내는 공간적 확장은 오토가 언급한 ‘어마어마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와 같이 우리의 공간적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공간감을 느끼게 하는데, 오토는 이러한 긴장상태를 무아경(Fascinosum)으로 인식하고 이는 두려움과 대조적 조화를 이룬다고 설명하였다. 100m에 달하는 무수한 반복은 실재하는 것과 무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고, 끝없이 반복된 공간 속에 우주의 크기를 상상하게 한다.

32) 진경성, 종묘의 건축적 상징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8, p.591

매혹성, 어마어마함, 장엄성 등으로 설명되는 이 무아경은 정전 내부의 공간에 들어선 인식주체가 무한한 공간감 속에 우주와 동화되고 합리적인 세상성과 대치되는 초세상적 극치를 경험하게 하는데, 오토가 이야기한 ‘저너머’(epekeina)로 표현되는 초세상성의 진입을 배례객은 열주를 지나는 과정을 통해 경험하게 되고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초월적 행복감과 지복에 이를 수 있게 된다.



a) 신위공간의 반복과 확장 b) 종묘제례와 공간적 행위

<그림 11> 정전 신위공간의 반복과 종묘제례의 유추적 감정, 한국문화재보호재단

(6) 유추적 감정을 통한 공간적 행위

종묘의 건축과 함께 종묘를 완성하는 것은 종묘제례에서 행하여지는 공간적 행위이다. 자연의 소재와 소리를 통해 음악 이상의 감정을 구현하는 제례악과 정적인 움직임을 통해 침묵과 엄숙함을 만드는 춤은, 종묘의 공간적 구성과 함께 누멘적 표현을 완성하고 있다.

제례악은 악기 편성에 있어서는 중국의 우주론에 근거한 팔음을 사용하였는데 팔음이란 자연 소재의 8가지 재료로 만든 악기를 의미한다. 금(金), 석(石), 사(絲), 죽(竹), 포(匏), 토(土), 혁(革), 목(木)으로 구분되는 악기를 예(禮)에 따라 상하좌우로 배치함으로써 유교적 절차와 함께 우주의 형식에 무형적 제례가 조화되도록 하여 제례악을 듣는 신과 인간이 우주적 원리 안에서 동화되도록 하였다.³³⁾ 제례 음식은 아무런 양념 없이 올려 지며, 다른 조리 없이 단순히 삶아진 고기를 준비하고 있는데³⁴⁾, 신을 맞이하는 절차와 신을 즐겁게 하는 절차, 신을 보내는 절차로 구분되어 지는 종묘제례의 형식에서 신을 위한 음악과 춤에 아무런 기교가 없다는 것은, 유교가 지향한 신의 형식을 가늠하게 하고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의도와 무형의 행위가 같은 맥락에서 조화되도록 하고 있음을 가늠하게 한다.

오토에게 있어 누미노제의 유추적 감정들은, 요소들이 갖는 자극과 이행을 통해 감정이 연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오토는 음악화된 노래나 소리가 보이는 복합 감정을 거론하며, 음악과 소리는 감정표현을 위해 일상적인 언어와 함께 사용하는 별도의 언어가 아니라고 생

33) 김민정, 종묘제례악의 연출원리와 미학적 특성, 한양대 우리춤연구, 2005, p.135





34) 김개천, 미의신화, 컬리그라퍼, 2012, p.328



각하였고, 종묘에서는 소리와 문무의 형식들이 공간과 자극되고 이행되는 과정을 통해 인식주체의 감정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종묘의 계획은 물리적 공간에 머물지 않고, 공간적 구성과 함께 공간에 의도되어진 제례의 행위와 양식을 통해 공간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유추적 감정까지도 조율하며 공간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4.3. 종합분석

본 연구의 3장에서 루돌프 오토는 누미노제의 개념을 비합리성과 합리성, 선형성 등으로 대변되는 특성과 함께 6가지 누멘적 요소로서 그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그가 체계화한 6가지의 누멘적 요소를 중심으로 조망한 종묘정전의 공간적 표현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종묘 정전의 누미노제 표현특성

공간 구분	이미지	누멘적 요소	표현방법
			표현특성
진입 동선		피조물적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규칙한 형태와 질감의 판석, 목적 대상물의 시간적 은폐, 부속 건축물과 동선의 거리, 수목의 둘러싸임 - 선형성을 기반으로 한 인식주체의 자기성찰 여건 조성 - 제례 진행의 방향성과 속도 조절 - 배례객의 동화를 위한 정서적 준비
		두려움의 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선의 전환을 통한 공간 성격전환, 광대한 열린영역으로의 극단전 변화, 정전의 지붕과 주변의 자연요소가 더해진 거대한 크기와의 대면 - 절대적 불가접근성과 무화의 감정인식 - 두려움과 황홀함의 동시적 체험 - 거대한 앞에 겸손과 전율 유도
월대		위압성과 활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대의 위압적 비례, 평탄하고 높지 않은 동선, 다른 형태와 크기의 판석 - 월대 공간의 동세를 통한 생동감 표현 - 월대의 높이가 만들어 내는 위압 - 인식주체의 진입 통한 숨겨진 활력경험
정전		전혀 다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이공간으로서 무형적 영역 표현, 기교가 배제된 기둥 및 공포, 거대한 지붕과 그림자, 열주의 은폐, 신위공간의 확장성 - 현세와 속세, 산 자와 죽은 자의 공간 중간의 이질적 전이공간 - '공(空)과 같은 기이하면서도 역설적 비물(非物)공간 표현 - 생소한 것으로의 새로운 진입 준비

	무아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주와 태실벽의 음영대비, 열주의 반복을 통한 시각적 무한성과 영속적 공간감 표현 - 신적 공간으로의 전환과 초세상성으로의 진입 - 장엄함과 무한함을 통한 무아경 경험 - 인지할 수 없는 공간감을 통한 합리적 세상성과의 대치
	유추적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소재의 악기, 최소화된 문무의 움직임, 인위적 조리가 배제된 제례음식, 공간과 소리의 연계 - 자극과 이행을 통한 공간과의 감정 연계 - 침묵과 절제를 통한 유교적 신의 형식 표현 - 물리적 공간과 비물리적 요소의 동시조율

5. 결론

‘표현하기 어려운 본질’이 갖는 압도성은 우리가 이성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외경에 의한 감각이며, 이성으로 추정하는 원초적 감정이자 초월적 본질일 수 있다. 첨단 문명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원초적 감각과 본질의 문제는 관심의 영역에서 멀어지기보다 도리어 영속성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과 가치로서 강조되어 왔고, 오토는 이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한 학자이다.

본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항상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상과 마주한다. 한계 너머의 무엇과 대면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오토가 이야기하는 두려움과 황홀함의 시작인 것이다. 이에 대한 지성은 동양과 서양,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어디에나 존재해 온 원초적 지향이기에, 누미노제를 통해 세계를 보고자 했던 오토의 이해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한 종묘와 같은 이질적 대상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누미노제가 가지는 표현하기 어려운 본질의 대상이 갖는 보편성을 통해 분석해 본 종묘의 특성을 통해 요약될 수 있는 누미노제의 특성은 종묘를 통해 더 분명해 질 수 있다. 이는 외경심(畏敬心)을 불러일으키는 전율적(戰慄的)인 무서움, 압도적인 권위 앞에 놓여 지는 피조물적 감정, ‘절대타자(絕對他者)’로서의 신비로 요약되는 누미노제가 종교적 특성을 배제하고, 공간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이고 초월적 감각을 설명하는데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조선왕조가 사용하고 유교적 이념아래 건축 되어진 종묘 정전의 특성은, 종교적 특성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 누미노제 개념이 내포한 보편성과 공간적 성향을 더욱 명료화 시킨다.

그리고 종묘가 갖는 누미노제적 속성을 통해 종묘의 보편적 가치와 특성을 새로운 관점으로 재조명 한 결과로서, 종묘의 가치판단을 확장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의 종묘건축의 이해는 역사적 배경과 유교적 관점의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면서도, 일반화된 건축조형 이론에 의해 이해된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는 누미노제 이론의 관점과 확장된 시선을 통해 종묘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4. 류주희, 현대건축에 있어서 숭고의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3권 1호, 2011
 35. 최진, 종묘 내 길의 유형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19권 제2호, 1999
 36. <http://www.doopedia.co.kr/>
 37. <https://commons.wikimedia.org>
 38. <http://heritage.unesco.or.kr>

참고문헌

[논문접수 : 2016. 06. 28]
 [1차 심사 : 2016. 07. 18]
 [2차 심사 : 2016. 08. 08]
 [게재확정 : 2016. 09. 07]

1. Rudolf Otto, 성스러움의 의미, 분도출판사, 길희성 역, 2013
 2. 이정우, 객관적 선형철학 시론, 그린비, 2011
 3. Mircea Elide, 상징, 신성, 예술, 서광사, 1991
 4. William E. Paden, 성스러움의 해석, 청년서, 2005
 5. 유효한, 종교적 인간 상징적 인간, 이학사, 2009
 6. 김형수, 신 인식과 자기 인식 - 신 개념을 통한 정신의 인식 가능성, 누멘, 2012
 7. 김개천, 미의신화, 컬러그라퍼, 2012
 8. J. Wach, 비교종교학, 민음사, 김중서 역, 2004
 9. 박성연, 종묘 제례악, 문사철, 2013
 10. 김동욱, 종묘와 사직, 대원사, 2005
 11. 배국원, 현대종교철학의 이해, 동연, 2000
 12. 김미영,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 민속원 2010
 13. 이재경, Rudolf Otto의 종교철학 안에서 Numinose가 갖는 종교적 의미에 대한 연구, 광주가톨릭대 석사논문, 2011
 14. 최정화, 루돌프 오토의 '성스러움'이 탄생되기 전후의 맥락, 종교와 문학 제22호,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12
 15. 김유겸, 종교기원에 관한 인본주의적 고찰 - 에리히 프롬의 사상을 중심으로, 부산가톨릭대 석사논문, 2007
 16. 홍순목, 종묘건축의 공간 체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8
 17. 진경성, 종묘의 건축적 상징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18권 제2호, 1998
 18. 정지운, 이집트 신전건축의 기하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0
 19. 차미정, Claes Oldenburg와 Richard Serra의 Soft 조각과 Hard 조각의 비교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5
 20. 김명주, 소재원 공간의 재해석을 이용한 도심지 공원 계획안, 건국대 석사논문, 2004
 21. 박현아, 소재원의 유희적 특성을 이용한 게스트하우스 계획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10
 22. 이진영, 종묘공간의 기호 현상학적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12
 23. 서동수, 경계에 의한 건축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동의대 석사논문, 2002
 24. 유병훈, 종묘 길의 건축 특성 고찰, 동국대 산업기술연구원, 1999
 25. 김민정, 종묘제례악의 연출원리와 미학적 특성, 한양대 우리춤연구 창간호, 2005
 26. 유선미, 현상학적 지각체계를 통한 체험공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2013
 27. 신성권, 종묘제도의 탄생 - 종묘의 공간과 배치를 중심으로,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7집, 2014
 28. 최미령, 숭고의 개념을 통해 본 빌 비올라의 작품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2013
 29. 전찬진, 종묘의 건축 공간 깊이 표현 기법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6권 제1호, 2006
 30. 홍순목, 종묘의 건축 공간에 나타나는 시지각적 인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6권 제1호, 2006
 31. 김병욱, 포스트모던 이미지와 성스러움의 문제, 성균관대학교,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21집, 2007
 32. 김영건, 왕양명의 심(心)에 보이는 신성과 성성에 대한 이해, 성균관대 동양철학연구 제66집, 2011
 33. 이용주, 예(禮) 유교적 의미 기호 - 유교 의례의 해석학 시론, 유학연구, 제18집, 2008